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	과 장 박종주 042-481-5389 서기관 강원길 042-481-5535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7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3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특허청, 심사품질 혁신 위해 ‘파트장 중심 심사품질 관리체계’ 본격 가동

- 7월부터 심사 기본조직인 심사파트 중심으로
심사품질 혁신 추진 -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「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방안*」을 7월부터 시행하며, 이를 주도할 파트장 130명(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)에 대한 「파트장 임명장 수여식」을 7월 3일 특허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심사품질관리 혁신 : 심사업무의 주체인 심사관이 결재자(파트장) 또는 동료 심사관과 소통(토론, 협의 등)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(정확성·일관성 제고, 강한 지재권 창출)을 높이는 것

-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‘특허로 1번가’를 통해, 특허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출한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‘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’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.
-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·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~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*로 심사파트 중심 심사관리 체계의 도입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특허, 상표 등 지재권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* 심사과 인원(평균 30명)이 심사과장의 실체심사 관리범위를 넘어, 심사과별로 기술 또는 상표·서비스 분야별로 4~5개의 심사파트(평균 5~6명)를 구성, 운영
- ** 특허·상표·디자인: 총 40개(특허 33개) 심사과, 164개(특허 140개) 심사파트

□ 3일 개최된 「파트장 임명장 수여식」은 새로운 심사품질관리 체계에서 심사파트의 품질 혁신을 이끌어갈 파트장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특허청장이 파트장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.

-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서, 심사역량, 교육·지도역량, 조직관리역량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받은 우수한 심사관들이다.
-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쟁점 사항을 해결하고,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,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·학·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한편,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 중에는 여성 파트장이 22명(파트장의 17%)포함돼 있어, 향후 특허청에서 여성 관리자 수 증가와 함께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'16.12월 기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3.5%

□ 성윤모 특허청장은 "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."면서 "특허,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- ※ 붙임 : 1. 파트장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혁신체계
2. 심사파트장 임명 현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강원길 서기관(☎ 042-481-55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(현황)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,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판단의 편차 등 실체적 판단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여전
- (주요내용) 심사과장이 관리하는 심사관 수가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, 파트장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품질 관리 체계 구축 필요
 - (파트장) 심사 쏠과정, 모든 심사 건에 대해 파트원인 심사관을 조언·지도하는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심사행정 혁신 구현
- * 파트장은 파트원 심사건을 매월 1건씩 심층평가하는 「심층리뷰」 실시
- (효과) 파트내 심사관간 소통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 심사 과정의 객관성, 특허성(신규, 진보성) 등 권리부여 판단 기준 등의 일관성,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도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

- 소통형 협력심사 효과 -

- 심사관간 협의심사,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중심사 등 '소통형 협력 심사' 확대는 심사의 핵심인 선행기술 검색의 충실성 향상 등 심사품질 제고에 적극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

< 선행기술검색의 충실성 비교 >

구 분		('16)		('17)	
검색이력건수 (1 건당)	전체	11.0건	⇒	13.2건	
	협의	14.5건		24.3건	
	공중	13.4건		20.7건	
열람문헌건수 (1 건당)	전체	14.8건	⇒	25.9건	
	협의	18.6건		41.2건	
	공중	15.7건		33.6건	

- 특히, 비특허문헌 첨부율은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

* 비특허문헌 첨부율(%), 전체 vs. 협의 vs. 공중, '17) : 10.2 vs. 32.5(3.2배 ↑) vs. 32.1(3.1배 ↑)

2. 심사파트장 임명 현황

구 분	특·실				상·디			청 전체	
	과장*	4.5급	5급	계	과장*	4.5급	계	과장 포함	과장 제외
파트장	26	79	34	139	6	17	23	162	130**
여성 파트장	2	9	12	23	0	1	1	24	22
비율(%)	7.7	11.4	35.3	16.5	0.0	5.9	4.3	14.8	16.9

* 과장은 심사과(4~5개 심사파트 보유) 내 1개 파트장을 겸직(PCT, 주무과 제외)

** 파트장 임명장 수여 대상(상위 직급인 과장 제외)